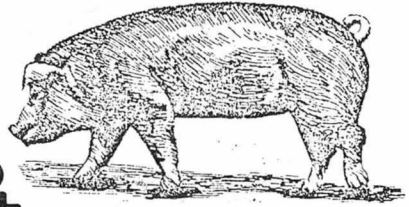




# 일본, 모든 100두규모 신규투자비 6억 2천만원 소요



김충세역 (본회 제주지부장)

「양돈장을 갖고 싶다. 이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것일까. 업계는 양돈농가호수의 격감으로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으면서도 새로 양돈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서 냉담한 것일까. 어지간한 자산가나 막강한 후원자를 찾지 못하는 한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농가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사육두수는 변함이 없거나 약간의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대형 양돈장이 규모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크게 하면 할수록 용자를 받기 쉬워지고,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는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이래도 좋은 것인가.

그러나 20년후에는 한 농가가 대형 양돈장이라고 불리우

“  
농가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사육두수는  
변함이 없거나 약간의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대형 양돈장이  
규모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크게 하면  
할수록 용자를 받기  
쉬워지고,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는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

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일 4톤차 1대 분량이 출하되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르는 것이다. 1대가 50두라면 매주 5대, 연간 250대, 12,500두가 출하되는 셈이다. 또한 모든 600두가 연간 46,000톤의 사료를 소비한다면, 1일당 130톤이 소비되는 것이다. 한편 1일당 퇴비생산량은 18톤, 오수처리량은 70m<sup>3</sup>이며, 경영규모로는 종업원(6명이 주5일 근무), 가족노동력 3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려면 전국 2,000호, 현재의 90%의 양돈농가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현실감이 없지만, 이것을 앞으로 10년간 양돈전업농가가 모든 100두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호수에

0.6을 곱하면 12,000호, 약 40%가 감소한 결과를 보면 현실감이 느껴질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모돈 100두의 양돈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를 시산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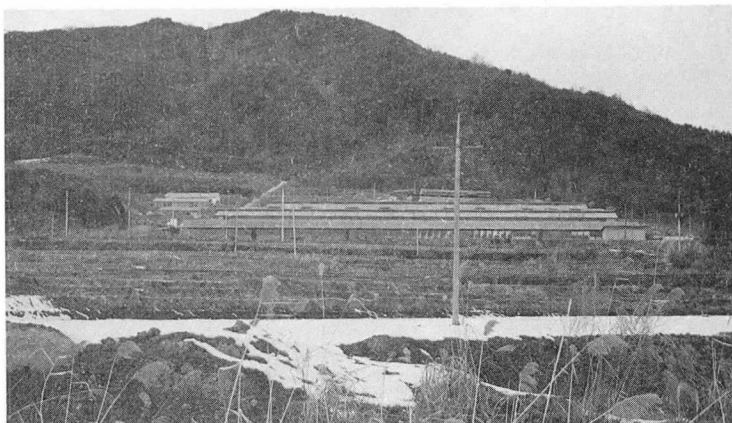
### 연간 1모돈 535,000엔의 매상이 손익분기점

먼저 「농가양돈 핸드북」(青木隆夫著, 일본 축산출판사간행)의 생산원가 시산방법을 참고로 손익분기점을 구한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돈 100두에서는 1모돈당 535,000엔의 매상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것은 1모돈당 연간 16.7두가 출하되면 가능한 숫자이다. 육돈매상 32,000엔이 비싸다고 생각되었지만, 여기에는 도축장 수수료 1,500엔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감가상각비가 300만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0으로 한다. 다음에 생산성적을

<표 1> 모돈 100두 일관경영에서의 손익분기점

모돈수	100두
사료평균단가	45엔/kg
모돈갱신율	40%
후보모돈비용	8만엔/두
감가상각비	300만엔/년
노동비용	600만엔/년
육돈매상	3만2000엔/두
대관매상	3만1000엔/두
1모돈당 손익분기점	53만5000엔/두



모돈 1두당 연간 18.5두 출하한 경우의 이익액을 생각해보자. 생산비 합계 5,430만엔, 매상 6,040만엔, 차익 610만엔이 금리를 포함한 반각(返却) 가능한 금액이다. 연간 20두를 출하하는 경우에는 835만엔이다.

그러면 제도자금을 빌리는 경우, 예를 들어 4% 금리로 5년 거치 20년상환을 계획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금리를 고려하면 20두 출하의 경우에는 약 8,000만엔이 차입가능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융자율이 80%이므로 20%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0만엔을 어쨌든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자기자본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보로 할 수 있는 1억엔 상당의 물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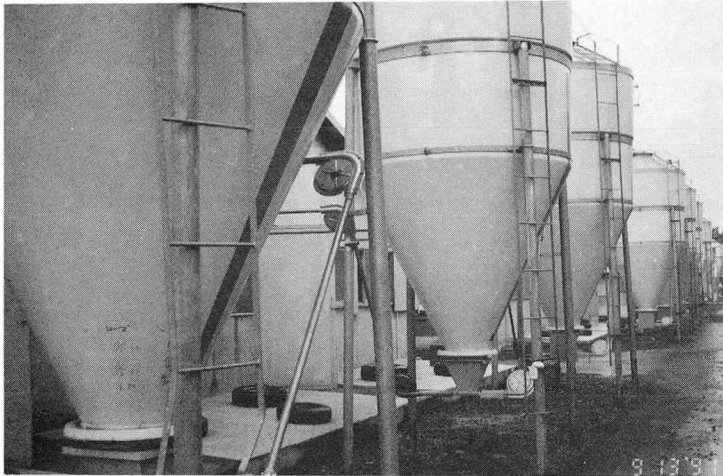
「1억엔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테니 양돈을 하게 해주십시오. 과연 몇 사람이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1반(토지

를 세는 단위)300만엔의 토지를 3정보 가지고 있어도 9,000만엔이다. 상당히 어려운 상담이 되지 않겠는가.

### 돈 다음의 큰 문제는 토지의 확보

또 한가지 큰 문제는 토지의 확보이다. 양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인 경우, 주택지는 우선 불가능할 것이다. 가령 하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류가능하지 아닌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 건설한다고 하면 도로나 전기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법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시설이라고 하는 경미(輕微)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물의 평면도,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그것을 군청에 제출하면 군청에서 시도에 안건으로



서 제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1년에 2번밖에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서든 토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입체적으로 2층이나 3층으로 지으면 작은 면적이라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단층 건물을 알아보자.

〈표2〉에서처럼 돈사 3동, 여기에 사무실, 퇴비장, 오수처리 시설, 창고(차고, 농기구 등)등

이 들어있는 1동이 필요하다.

### 100두 일관경영에는 8,000만엔의 투자가 필요

그러면 면적은 어느정도 필요할까. 웅돈방은  $2.7 \times 2.7 \times 7 = 51.03\text{m}^2$ , 스톨은  $0.6 \times 2.0 \times 80 = 96.0\text{m}^2$ , 분만돈방은  $1.8 \times 2.2 \times 30 = 118.8\text{m}^2$ , 이유돈방은  $2.4 \times 3.0 \times 15 = 108.0\text{m}^2$ 인데, 레이아웃해 보면 통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가지 안이 있지만 여기

에서는 무조건 돈방총면적의 0.5배의 통로면적을 포함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면 번식돈사가 합계 약  $560.7\text{m}^2$ 가 된다. 비육돈사에서는 통로를 0.3배로 계산하여 합계 약  $787.7\text{m}^2$ 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강의 계산이 되겠지만, 번식돈사는 평당 15만엔, 비육돈사를 7만엔으로 잡으면 번식돈사는 약 2,550만엔, 비육돈사 1,670만엔, 합계 4,220만엔이 된다.

또한 운전자금으로서 모돈 100두(8만엔 $\times$ 100), 웅돈 7두(20만엔 $\times$ 7)의 종돈값 940만엔과 출하까지의 경비 약 1,300만엔(회전할 때의 약 4분의 1)이 필요하다. 이것만의 합계가 6,460만엔이 되어 농지 구입비용도 염출할 수 있지만 여기에 퇴비장, 노처리시설, 사무실, 창고까지 포함하면 퇴비장에 100만엔, 창고에 100만엔으로 본다면 총합계 7,960만엔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 양돈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역시 토지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양돈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양돈농가 호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었지, 늘어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

〈표 2〉100두 일관경영에서의 필요돈사·돈방수, 필요면적

번식돈사	웅돈방	7	$2.7 \times 2.7 \times 7 = 51.03\text{m}^2$
	스톨	80	$0.6 \times 2.0 \times 80 = 96.0\text{m}^2$
	분만돈방	30	$1.8 \times 2.2 \times 30 = 118.8\text{m}^2$
	이유돈방	15	$2.4 \times 3.0 \times 15 = 108.0\text{m}^2$
비육돈사	육성돈방	20	$2.7 \times 3.4 \times 20 = 183.6\text{m}^2$
	비육돈방	46	$2.7 \times 3.4 \times 46 = 422.3\text{m}^2$
도입돈사	후보돈방	2	